외국인환자 유치 '지방 및 병·의원'에서 증가

지난해 36만명 진료 … 국적 및 진료과목 다양해져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36만명에 달했으며, 진료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의 국적 및 진료과목 등이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000명이었으며, 2009년 이후 누적 156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2009년 이후 총 3조원을 누적 달성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았으며,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아랍에미리트(UAE) 환자가 11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태국(524만원), 카자흐스탄(417만원), 인도네시아(398만원)가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도 284명을 기록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 진료가 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4만8000명, 피부과 4만7000명 순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일본 환자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부인과는 러시아, 몽골 등에서 불임치료에 대한 수요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2만3000명을 유치했다. 한방도 전년 대비 36% 증가한 1만8000명이 찾았다.

지역별 환자비중은 서울이 전체의 59%인 21만6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은 78.2%로 전년 대비 2%p 감소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대구, 제주가 전년 대비 각각 88%, 63%, 46% 증가해 지방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의 비중이 감소하고, 병·의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의 비중은 59.5%에서 54.6%로 전년 대비 4.9%p 감소했고, 병·의원의 비중은 34.3%에서 39.2%로 전년 대비 4.9%p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9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중국 환자는 12만7000명으로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찾았다. 특히 성형외과의 비중이 줄고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 증가했다. 일본 환자는 2만7000명이었으며, 그 중 44%는 피부과를 찾았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는 각각 1만5000명, 4000명이었으며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다. 동남아의 경우 베트남 환자가 8700명으로 내과, 산부인과를 많이 찾았으며, 태국 환자는 4000명으로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방문했다.

중동 환자는 7200명으로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순이었다. 정부간 송출 환자를 포함한 UAE 환자는 3500명이 방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왔다.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실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의 다변화, 진료수입 증가, 병·의원급으로의 확대, 비수도권 지역 유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단계였다"며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등과 연계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 간호현장 격려 방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한 간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회장·최영희) 회원들이 6월 23~24일 서울지역 간호현장을 찾아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는 매년 간호현장을 찾아 나이팅게일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최영희 회장과 최징자 부회장을 비롯해 전금자, 안상정, 이화자, 도복늠, 최미자, 김용순 회원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희시니어스 너싱홈'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연희시니어스 너싱홈 대표원장은 김현주 한국너싱홈협회장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북한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버건강문화공간 개념으로 설계됐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및 생활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영희 회장은 "너싱홈 분위기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해 신뢰가 간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간호사 후배들을 보니 반갑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서울성모병원 박현숙 간호부원장 취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제3대 간호부원장에 박현숙 안나그라시아 수녀가 임명됐다. 6월 1일자.

박현숙 간호부원장의 취임식은 홍현자 제2대 간호부원장의 이임식과 함께 5월 19일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간호부서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현숙 간호부원장은 1988년 가톨릭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간호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며 구매팀장, 간호1팀장, 외래계간호팀장, 응급의료팀장 등을 지냈다.

박현숙 간호부원장은 "간호부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울성모병원 모든 교직원의 엄마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부산시병원간호사회 '병문안 문화 개선' 거리 캠페인

부산시병원간호사회(회장·황순연)가 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6월 13일 펼쳤다.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병상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호사 600여명이 참여해 용두산공원부터 부산역 광장까지 현수막을 들고 걸으며 캠페인을 펼쳤다.

현수막에는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홍보문구로 '감염으로부터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병문안 시간을 준수합시다' '병문안,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할아버지 병문안 하고 있어요' 등이 새겨졌다.

부산역 광장에서는 홍보문구가 새겨진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병문안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황순연 회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이 병원 내 감염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해외긴급구호대 합동모의훈련 실시

정부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17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6월 12~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실시했다.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모의훈련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다뤘다. 재외공관의 재난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부터 KDRT 파견과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등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전반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모의훈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훈련이다. 지난해 KDRT 구조팀이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인증평가에서 유엔이 공인하는 최고등급(Heavy)을 획득한 이래 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국제표준절차를 적용해 실시된 첫 훈련이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KDRT를 파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쓰촨성 대지진, 아이티 대지진, 일본 대지진, 필리핀 태풍 하이옌, 서아프리카 에볼라, 네팔 지진 등 피해현장에 파견돼 성공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훈련결과를 반영해 올해 내에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및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선진화와 KDRT 역량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재난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대학보건간호사회 설립 20주년 맞아

대학보건간호사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6월 22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위진희 대학보건간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발전해온 대학보건간호사회가 20주년을 맞았다"면서 "회원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대학보건간호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역대 임원들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대학보건간호사회 20년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기념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박정소 팝페라가수가 축하공연을 했다. 회원들은 만찬과 함께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기념식에 앞서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주제로 한옥자 초대 대학보건간호사회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특강을 했다.

대학보건간호사회는 전국 대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조직으로 1997년 설립됐다. 회원들의 위상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보건간호사는 대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캠퍼스 내 감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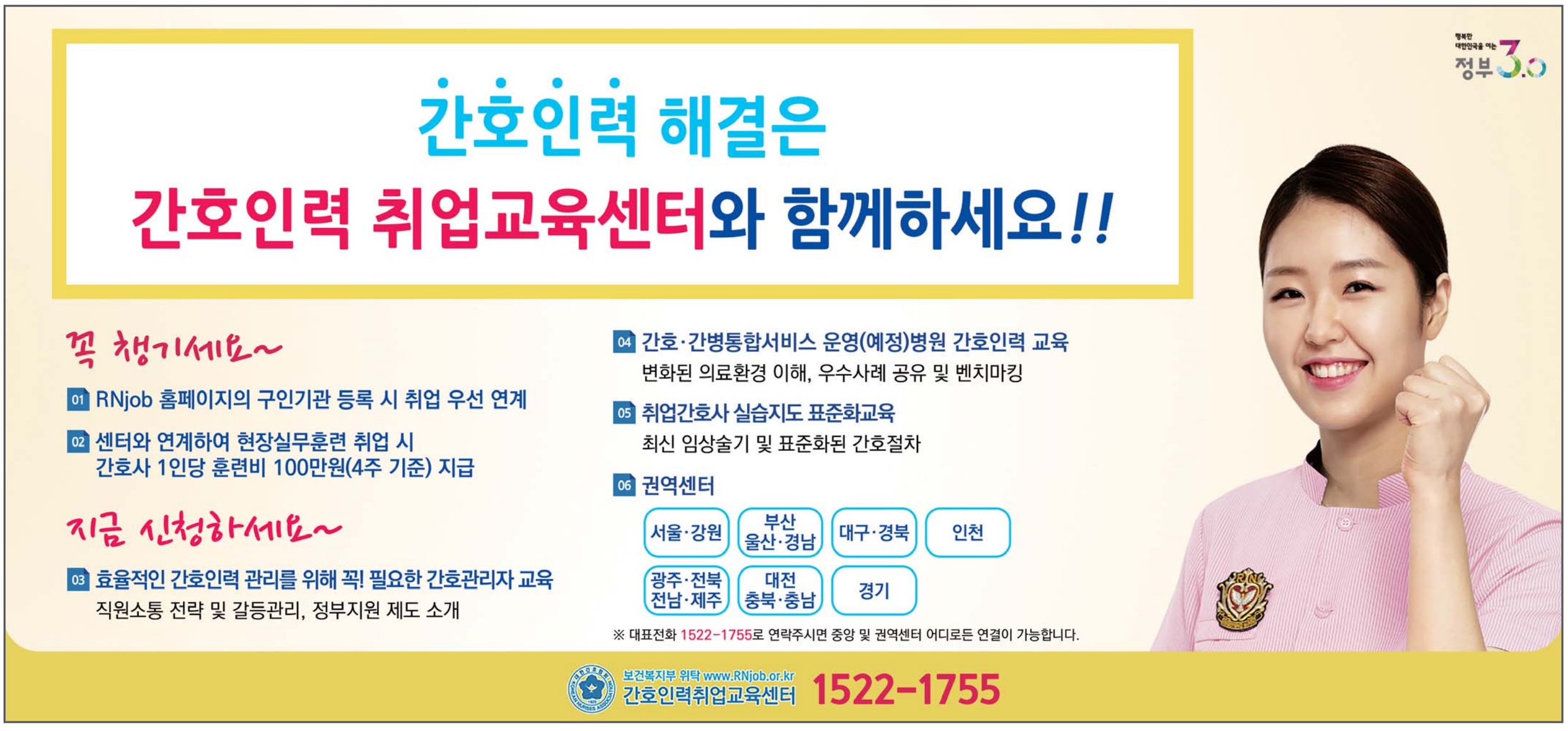
권정화 건국대병원 간호사,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해외에서 수영장에 빠진 아이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한 간호사의 소식이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권정화 건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권정화 간호사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ING컵 컨벤션 트립'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휴가 중이던 지난 5월 17일,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은 아이를 안전요원이 구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고, 호흡이 없었다. 안전요원에게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아이는 곧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이 돌아온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권정화 간호사는 "평소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정화 간호사의 소식은 (주)ING생명보험에서 건국대병원 홍보팀으로 알려와 공개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